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30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박광남
Kwangnam.park@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 120달러, 매파 연준...에너지발 인플레 공포에 증시는 멈칫

- 연준 3연속 동결 속 뉴욕증시 혼조 마감, 다우 -0.6%, 나스닥·S&P500 보합권 유지
- 브렌트유 118달러(장중 119달러대) 급등, 중동 전쟁·대이란 봉쇄 장기화 우려 심화
- FOMC서 4명 이견·파월 퇴임 후 이사직 유지 결정, 연내 금리인하 기대 약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Summary

뉴욕증시는 연준 4월 FOMC 3연속 동결 결과와 고유가 충격,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혼조권 마감함. 미런 이사의 25bp 인하 주장 등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인 4명의 이견이 표출되고 성명에서 중동발 인플레 재점화 우려가 강조되며 매파적 신호로 해석되어 10년물 금리는 4.4%까지 급등했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 봉쇄 장기화 시사로 브렌트유는 6% 넘게 급등해 배럴당 118달러를 돌파했고, WTI도 106.88달러까지 치솟으며 휘발유 가격이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해 경기민감 업종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음. 다만 3월 내구재 주문이 +0.8%로 반등하고 주택 착공이 150만대로 예상을 상회하는 등 실물지표는 견조했으나, 건축허가 137만대 급감과 원유·휘발유 재고의 큰 폭 감소가 향후 수요 둔화·유가 상방 압력 우려를 동시에 남겼음. 다우는 에너지·금리 부담에 0.57% 하락한 4만8,861.81로 밀렸고, S&P500은 0.04% 하락(7,135.95), 나스닥은 빅테크 실적 기대로 0.04% 상승(2만4,673.24)하며 대형 성장주가 상대적 방어력을 보인 반면, 금리 부담에 민감한 소형주 러셀2000은 0.60% 하락(2,739.47)하며 약세를 보였음. (다우 -0.57%, 나스닥 +0.04%, S&P500 -0.04%, 러셀2000 -0.60%)

연준 기준금리 동결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75%로 3연속 동결하며 예상과 부합했지만, 25bp 인하를 주장한 미런 이사와 '완화 편향' 문구에 반대한 3명을 포함해 4명의 이견이 나오며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의 내부 분열이 드러났음. 성명과 기자회견에서는 이란 전쟁과 중동 리스크,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는 경계가 강조됐고, 시장은 이를 연내 금리 인하를 미루는 매파적 신호로 해석함. 실제로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4%까지 올라 한 달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역시 3.94%로 급등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후퇴시켰음.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 급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전까지 해상 봉쇄 유지"를 재확인하고 정유업계와 장기 봉쇄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브렌트유는 6% 넘게 급등해 배럴당 118.03달러(장중 119달러대)를 기록, WTI도 106.88달러까지 치솟았음. 유가 급등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4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실질 구매력과 기업 마진 압박 우려를 키우는 한편, 항공·자동차·운송 등 경기민감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를 약화시킴.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지표

반면 주요 경제지표에서는 3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1.2%에서 +0.8%로 반등하고, 운송 제외 기준도 0.9% 증가해 제조업 설비투자가 견조함을 시사했음. 주택 부문에서는 착공이 150만대 수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향후 수요를 가늠하는 건축허가는 137만대로 급감해 고금리·원자재 부담 속 주택시장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남김. 원유·휘발유 재고는 모두 예상보다 크게 감소해 공급 타이트 심리를 자극, 유가 상방 압력을 더한 상황임.

한편 파월 의장은 5월 15일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압력 속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차기 의장 케빈 워시 인준안이 상원 은행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의 '트럼프 색채' 강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음.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원자재·운송·비료·알루미늄 등 실물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인도·유로존·신흥국으로 인플레이션·자본유출 압력이 번지며 위험자산 선호가 제한되는 모습임. (다우 -0.57%, 나스닥 +0.04%, S&P500 -0.04%, 러셀2000 -0.60%)

특징종목

실적 발표에 시간외 주가 변화

알파벳 (-0.05%)은 Google Cloud 매출이 +63% YoY로 전분기(+48%) 대비 큰 폭 가속하며 엔터프라이즈 AI가 클라우드 성장의 1차 동력으로 자리잡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 2027년 CapEx 추가 확대 시사로 AI 인프라 수혜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시간외 +4%대 강세를 보였음. 마이크로소프트 (-1.12%)는 Azure 매출이 +40%로 가이던스 상단(37~38%)을 상회했고, AI 사업 매출 런레이트가 370억 달러(+123% YoY)에 도달하며 capex의 매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입증했음. Commercial RPO가 6,270억 달러(+99% YoY)로 미래 매출 가시성까지 확인되며 초기 약세를 딛고 시간외 상승 전환에 성공했음. 아마존 (+1.29%)도 AWS 매출이 +28% YoY로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클라우드 가속이 본격화되었음을 입증했고, OpenAI(2GW) 및 Anthropic(5GW) Trainium 장기 공급계약, Meta향 Graviton 코어 공급 등 자체 칩 수요 가시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1분기 CapEx 442억 달러 급증에 따른 잉여현금흐름 축소 우려에도 불구, AWS 가속과 AI 인프라 수요 검증이 호재로 작용하며 시간외 상승 전환에 성공했음. 다만

메타 (-0.33%)는광고 매출 +33% YoY로 견조한 펀더멘털을 재확인했으나, 2026년 CapEx 가이던스를 1,150~1,350억 달러에서 1,250~1,450억 달러로 상향하면서 AI 인프라 지출의 투자 회수 가시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음. 컨센서스를 +200억 달러 상회하는 capex 부담이 부각되며 시간외 -6%대 급락했음. 퀄컴 (+4%)은 QCT 매출이 메모리 공급 부족 영향으로 -13% YoY 감소하며 핸드셋 사업 둔화가 확인되었으나, 자동차 +38%·IoT +9% 등 다변화 동력이 견조했고 "선도 하이퍼스케일러향 커스텀 실리콘" 데이터센터 진출 본격화가 부각되었음. 3분기 매출 가이던스(92~102억 달러)가 컨센(103억) 하회에도 불구, 데이터센터·피지컬 AI로의 전환 스토리가 재평가되며 시간외 +16%대 강세로 전환되었음.

실적 호조에 강세

NXP 세미컨덕터스(+26%)는 자동차·산업용·IoT 부문 수요 강세로 1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를 크게 상회했고, 견조한 마진과 2분기 가이던스 상향, AI·차량용 반도체 모멘텀 부각으로 급등함. 인텔(+12%)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함께 신제품 출시,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기대가 더해지며 양호한 실적 전망이 반영돼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함. 온세미컨덕터(+6.0%)는 지리·니오와의 SiC 칩 공급 계약 확대 소식과 900V EV용 전력반도체 수요 증가가 부각되며 전기차 전력 반도체 대표 수혜주로 재평가받았음.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ADP, +8.0%)는 매출·순이익이 각각 7%, 9% 성장한 3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매출·EPS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방어적 성장주 선호 수요를 흡수함. 안정적 배당 수익률(3.46%)이 금리 불확실성 국면에서 매력을 높인 가운데, 일부 AI·고용지표 리스크 지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 신뢰가 우세한 모습임.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 금리 상승

미 연준의 매파적 동결 이후 글로벌 금리가 일제히 상승 압력을 받음. 미 국채 10년물은 4.43까지 오르며 4주래 고점을 재차 상향했고, 영국 10년물은 5.06, 독일 10년물은 3.12로 뛰어 인플레이션 재부각과 추가 긴축 기대를 반영함. 한국 10년물은 3.86으로 보합 마감했으나, 미·영·독 금리 급등에 연동될 소지가 큼.

외환시장, 안전자산 선호 심리 부각

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는 98.96으로 하루 동안 0.3% 상승,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됨. 유로/달러는 1.17로 3주래 저점을 재확인했고, 달러/엔은 160.33으로 21개월래 엔화 약세 구간을 이어감. 달러/원은 1,488.33으로 하루 동안 1.1% 상승하며 에너지 수입 부담과 위험회피 심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임.

유가 급등

상품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의 對이란 해상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속 WTI가 108.49로 하루 동안 8.6%, 브렌트유가 120.30으로 8.1% 급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함. 반면 금은 4,543.88로 1.1% 하락하며 한 달래 저점을 경신했고, 은(-2.4%), 구리(-0.8%) 등 비에너지 상품도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부담에 약세를 보이는 등 채권·외환·상품시장이 모두 인플레이션 재가열과 긴축 장기화 우려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